



3면

"민생 최우선, 현안 해결에 혼신"

2024년 4월 2일 화요일 (음 2월 24일) 제347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튜링기로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尹 의대 2000명 증원 고수 '무의미' vs '충분' 입장 분분

의협 비대위 "尹 해결 실마리 제시 기대했으나 실망" 전의교협 "충분히 '통일된 안' 현실 가능성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거듭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 의견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국외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료계의 '통일된 안'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었다.

1일 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의정 대치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발표를 지켜보지만 담화문 내용에서 이전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대를 많이 한 만큼 실망도 더 많이 했다"면서 "의료계와 증원에 대해 많이 논의했다고 했지만 의료계 의견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OECD 의료 지표 대부분에서 최상으로 조금의 관심과 투자가 있고 환자와 의사들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와 지원책이 준비된다면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려왔다"면서 "그러나 의대 2,000명 증원만 반복적으로 언급돼 답답하다"고 했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회장은 향후 대응 방안을 묻는 뉴스시 취재진에게 "대통령이 의사들을 다 죽이겠다는 데 힘 없는 의사가 될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방 회장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국 의료가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망하게 놔둘 수 없으니 (기존 조치를) 그대로 갈 것"이라며 주 52시간 진료 축소와 집단 사직서 취합 등 그간의 행동을 이어 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안 돌아오면 한국 의료는 망한다. 오늘(1일) 대통령 담

화문 때문에 이제 다시는 전공의들이 안 돌아올 것"이라며 "저항할 수 있는 데까지 저항해야겠지만 이제는 앞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의과대학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장 홍보위원장은(고려대 의대 교수)은 "윤 대통령이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요구한 것이 현실성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문에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의대 교수협,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에서 2,000명 증원 철회라는 총론에는 일치된 입장을 보이지만, 각론에서는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통일된 요구안을 제시하면 다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교수는 "의료계에서 '통일된 안'을 내는 것은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며 "지금까지 김대교 의협 비대위위원장과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박단 대전협 대표 등 세 명이 끊임 없이 얘기해왔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대다수 의료계에서 통일된 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겠냐"며 "충분히 통일된 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교수는 전날 의협 비대위가 정책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한 것도 의료계가 통일된 요구안을 내는 데 힘을 실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어제 의협 비대위 총회에서 정책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며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정책위원장이 됐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교수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현행 유지해도 현재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며 반박했다.

조 교수는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의대) 증원 없이 그대로 뒤도 1명당 의사수가 7.7명"이라며 "현행을 유지했을 때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상회하고, 2050년에는 8.6명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 정원은 늘리는 것보다 늘리고 난 후에 줄이는 게 더 어렵다"며 "의대 증원을 해도 미리 준비를 하고 시행하는 게 아무런 저항도 없고 합리적인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도 의대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비롯한 대전협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회 대표들이 모여있는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역시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새로운 내용이 없으며 앞으로도 휴학계 제출과 수업 거부 등 집단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단축 진료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원광대학교 의대 교수 및 원광대병원 교수진 150여명 중 11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한, 전북대학교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근무시간 조정 등에 나섰다. 이들은 증원 정책 철회, 의료·교육 현장 정상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재훈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일 전북자치도를 방문한 레티투항 베트남 외교부 차관 등 대표단과 유학생, 다문화가족, 계절근로자 등 도내 거주 베트남 교민에 대해 대화하고 향후 전북과 베트남간의 협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의 시간을 갖고 있다.

베트남과 외교 협력 네트워크 강화

레티투항 베트남 외교부 차관 전북자치도 공식 방문 전북자치도, 지자체 교류 확대 의향 전달·협조 요청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일 전북자치도를 방문한 레티투항 베트남 외교부 차관 등 대표단과 유학생, 다문화가족, 계절근로자 등 도내 거주 베트남 교민에 대해 이야기하고 향후 전북과 베트남간의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자치도를 방문한 레티투항 차관은 베트남 외교부에서 재외 교민을 담당하고 있어 이번 전북방문에서도 특히 전북 거주 베트남 교민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면담 후 김재 전북특별자치도인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도내 거주 베트남인은 약 1만4,403명 정도로 이는 전체 외국인 중 가장 많은 26.8%를 차지 하고 있다. *유학생 4,991, 결혼이민자 4,193, 외국인근로자 1,364명

또한, 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지방정부간 교류에 대한 관심과 지역민이 체감하는 지방외교 실현을 위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레티투항 베트남 외교부 차관 등 대표단과 유학생, 다문화가족, 계절근로자 등 도내 거주 베트남 교민에 대해 이야기하고 향후 전북과 베트남간의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지방정부간 교류에 대한 관심과 지역민이 체감하는 지방외교 실현을 위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지방정부간 교류에 대한 관심과 지역민이 체감하는 지방외교 실현을 위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환담에서 "베트남은 정부의 인대 전략의 핵심국가로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상호 중요하고 국가이다"며 "관광, 유학생, 통상, 외국인 근로자 등 지역간 교류추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베트남 다락성, 까마우성과 우호협약을 체결, 행정, 문화, ODA 등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까마우성과 교류를 시작한지 5년이 되는 해로 문화, 청소년 상호 방문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 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제54회 전북기능경기대회 개막

자동차 정비 등 34개 직종, 252명 선수 경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가 주관하는 '제54회 전북기능경기대회'가 4월 1일부터 5일까지 전주공업고등학교 등 도내 9개 경기장에서 개막했다.

전북기능경기대회는 직종별로 지역의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발굴하고 지역 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숙련기술인의 축제다.

이번 대회는 자동차 정비 등 34개 직종에 총 252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정과 재능을 겨룰 예정이다. 대회에서 입상한 참가자들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뿐만 아니라 오는 8월 경복에서 개최되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북자치도를 대표해 참가하는 자격을 부여받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작년 충남에서 개최된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북선수단 95명이 출전해 금 2개, 은 8개 등의 메달을 획득해 호남권에서는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http://council.jinan.go.kr

더 큰 열정으로 진안군민의 뜻을 모아

군민의 생각이 곧 의회의 생각이 되는 진안군의의회가 되겠습니다.

항상 열린 의정으로 행복한 진안, 군민이 원하는 올바른 의회로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진안군의의회
http://council.jinan.go.kr